의협신문 <04. 3. 25>

2만번째 새 생명

한국심장재단, '활로씨 4징' 환아 수술 지원

올해 창립 20주년을 맞는 한국심장재단(이사장 이용각)에서 2만번째 새 생명이 탄생했다.

2만번째 새생명 탄생의 주인공은 서울대병원에서 '활로씨 4징' 수술을 받은 박지원 군(2003년 10월 2일 생·남·제주)이다. 박 군은 생후 1개월 당시 예방접종 중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. 제주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'활로씨 4징'으로 진단됐다.

박 군의 부모는 '활로씨 4징'이 수술로 완치될 수 있음을 알게 됐으나, 어려운 가정형편에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던 중 인터넷을 통해 한국심장재단과 접촉, 2월 12일 서류를 접수하고, 3월 2일 수술비 100% 지원이 결정됐다.

3월 9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박 군은 11일 김용진 교수(소아 흉부외과)의 집도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빠른 회복을 보여 22일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<사진>. 박 군은 특히 지금까지 재단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은 환자들의 성금 약 1,000만원으로 새 생명을 찾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.

한편 한국심장재단은 20,000번째 새 생명 탄생과 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26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화관 세종홀에서 축하 행사를 마련한다.

조명덕 기자